

동족마을의 자연 환경과 사회·경제의 변화: 상곡마을과 수촌마을을 중심으로

박규택*

요약: 본 연구는 성주와 고령에 위치한 두 동족마을의 자연 환경과 사회·경제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동족마을의 위치와 자연환경은 마을 내·외부와의 관계, 자연 재해, 생산 활동, 주민의 의식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둘째, 1970년대 이후 인구의 감소는 상곡과 수촌의 두 동족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마을의 자녀 출생과 주민의 도시이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셋째,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는 동족마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구광역시와 맞닿아 있는 상곡마을은 1990년대 이후 대구광역시의 외연적 팽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이에 반해 가야산계에 가까이 위치한 수촌마을은 참외를 상업적 작물로 재배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 동족마을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다. 넷째, 마을의 농업상태에 대해 상곡과 수촌마을 주민의 인식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두 마을의 주민은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였다.

주요어: 동족마을, 자연환경, 인구 변동, 상업적 작물, 산업화, 도시화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왔거나 혹은 도시에 태어나 도시에 살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농촌을 과거의 일로 기억하거나 도시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거나 여가, 관광, 생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인구 가운데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게 된 현상은 인류 역사에 있어 아주 최근의 일이다. 인간이 정착 농경을 시작한 이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나간 시간 동안 농촌은 대다수 사람들이 일

상적인 생활을 하고 사회·문화·경제 활동을 하는 중심 공간이었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농촌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농촌의 위상도 크게 약화되었다.

1960년대 이후 경북 지역의 농촌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혹은 소수의 유명 성(性)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족마을¹⁾이 유지되고 있다. 즉 동족마을이 지속되기 위한 물질 토대는 크게 약화되었지만 제사와 문중의 대외적 활동 등을 통해 동족의 유대가 유지 혹은 활성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김필동, 2000; 주승택, 2004).²⁾ 조선 중기 이후 동족마을³⁾은 유교 이념을 토대로 지역의 사회·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힘과 권위를 (재)생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pkt11@pusan.ac.kr

산하여 왔다. 김춘택은 “동족마을은 유교의 중심적 위치에 있으며 한국농촌을 파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춘택, 2006, 23).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동족마을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미래 존립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종족은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종족을 통해 계승되어 온 한국인의 가치의식은 쉬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우리가 전통적·전근대적이라고 부정해 버렸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 사회에서 소중하게 요구될 긍정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김필동, 2000, 285).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시기에 동족마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북의 농촌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동족마을이 1960년대 이후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미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동족마을의 미시적 분석을 위해 연구는 두 개의 마을, 고령군 다산면 상곡 1리⁴⁾와 성주군 벽진면 수촌 4리⁵⁾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족마을의 물적 토대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룬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970~2000년대 중반까지 상주와 고령에 위치한 두 동족마을의 자연 환경과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참여 관찰과 주민 구술, 설문지, 행정과 교육 기관의 자료로 경관과 지형도 읽기 등을 의존하였다. 수집된 양적·질적 자료들은 단순하게 기술하거나 기본적인 통계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구술과 설문지는 상곡과 수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행정과 교육 자료는 군청, 면사무소, 초등학교(다산초등학교와 벽진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집되었다. 그리고 동족마을의 자연·건조 환경과 토지 이용에 관한 자료는 현장답사와 지형도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두 마을에서 실시한 설문 대상자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설문조사가 실시된 2005년도 상곡마을의 총인구는 302명이고, 세대는 122가구이다. 설문지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응답자 31명은 31가구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상곡

표 1. 설문조사 마을의 응답자 주민의 특성

구분		상곡마을		수촌마을	
		응답자(명)	비율(%)	응답자(명)	비율(%)
성별	남	25	80.6	40	93.0
	여	6	19.4	3	7.0
부부 생존	부부	22	71.0	39	90.7
	독신	9	29.0	4	9.3
연령	40대	6	19.4	18	41.9
	50대	4	12.9	12	27.9
	60대	7	22.6	5	11.6
	70대	7	22.6	5	11.6
	80대	4	12.9	3	7.0
합계		31*	100.0	43	100.0

* 응답자 가운데 나이를 밝히지 않은 3명이 포함되어 있다.

마을의 122가구 가운데 31가구(25.4%)를 표본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수촌마을의 경우, 총인구는 248명이고, 세대는 93가구이다. 수촌마을의 93가구 가운데 43가구(46.2%)를 표본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두 마을의 응답자 가운데 남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본 연구가 개인이 아닌 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 가운데 남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상곡마을은 40대에서 8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수촌마을은 40대와 5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 동족 마을의 문헌 고찰

2000년대 이후 인문지리학, 특히 경제지리학은 농촌 마을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형기주는 한국 경제지리학 50년을 회고한 뒤 “오늘의 시류에 영합적인 테마가 많고 옛날에 비하면 관심의 스펙트럼은 넓어졌으나 재래산업이나 굴뚝산업, 1차산업에 대한 연구가 전문한 상태인 것이 우려되는 현상입니다”라고 기술하였다(형기주, 2008, 7). 1998년에 한국경제지리학회지가 창간된 이후 현재(2010년)까지 농촌에 관한 논문은 10편이 되지 않는다. 이들 소수의 논문들도 농촌 어메니티,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농촌지역개발과 정책과제, 와인생산의 클러스트, 전통산업의 부활과 지역활성화 등을 다루고 있어 농촌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조영국·박창석·전영욱, 2002; 안종현, 2007; 박덕병·윤유식·이민수, 2007; 신동호, 2008). 오랜 인류 발달사에 있어 중요한 자연적·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작동한 농촌 사회와 마을은 미래 인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도 다양한 측면, 생태 혹은 자연환경, 삶의 터전, 농산물의 자급자족, 긍정적인 전통 문화와 가치의 보존과 계승, 여가와 휴식 공간의 확보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농촌 지역에서 사회·문화·경제 등의 측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동족마을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건축학 등에서 이루어졌다. 1980년대 지리학에서 동족마을의 연구는 입지, 경관, 구조와 기능, 지역화 등의 주제를 다루었고, 1990년대는 공간구성, 사회적 관계, 인구이동, 등이 연구되었다.⁷⁾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상울(2007)과 전종한(2001, 2002, 2003, 2004, 2005a, b)을 제외하면 지리학자들에 의한 동족마을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30년간 지리학 내에서 이루어진 동족마을의 연구는 주로 경관·사회·문화·역사의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1960년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이후 동족마을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지리학 내에서 이루어진 동족마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60년대 이후 경북지역에 위치한 동족마을의 사회·경제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해 동족마을에 대한 기존문헌과 산업화·도시화의 진전과 관련된 농촌 연구들의 결과물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의 분석틀은 3가지 주제, 상대적 입지,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로 구성될 것이다.

1) 상대적 입지

경북지역의 농촌 마을은 일반적으로 낙동강 주변의 좁은 평야지대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산간분지 혹은 기저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족마을의 입지도 예외는 아니다. 동족마을은 전통적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남지방의 4개 전통취락의 입지를 살펴본 최희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유곡(酉谷, 닭실)은 계곡분지의 산록부에, 천전(川前, 내앞)은 구릉지 말단부에, 하회(河回)는 곡류하천 범람원의 자연제방에, 양동(良洞)은 구릉지에 입지한다(최희만, 2003, 413). 이병희(2000)는 진도의 6개 동족마을의 입지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동족마을은 배후에 비교적 높은 산

이 있고, 가옥들은 산록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농지는 마을의 옆과 앞에 펼쳐져 있다. 산록 경사면에 가옥이 위치하기 때문에, 식수의 확보가 용이하고, 산에서 땀감의 취득이 수월하고, 홍수로 인해 침수되지 않는 지점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이병희, 2000, 97). 동족마을의 입지를 자연환경과 연계시켜 설명하려는 연구와는 달리 이근호·조준호·이규형(2001)은 관계성과 경제성이란 측면에서 집성촌⁸⁾ 입지를 설명하였다. 경기북부지역의 집성촌은 관계적 측면에서 주변지역, 특히 한양과 쉽게 교류할 수 있는 곳에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을 통한 세곡운송이 용이한 곳에 입지하였다. 이는 사족으로써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용이한 지점에 마을이 입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근호·조준호·이규형, 2001, 282).

전종한(2001)은 고정된 입지로서의 전통적인 촌락 개념이 이제 사회적·문화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유동적이고 전이적인 용어로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석홍(2001)은 1990년대 이후 경기북부지역에서 급속하게 진행된 신도시개발 혹은 새로운 택지개발의 구성에 따라 집성촌이 해체되면서 전통적 입지특성은 사라진 대신 대도시 주변이라 새로운 입지조건이 형성됨을 밝히고 있다. 동족마을의 입지는 일반적으로 배산임수의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설명되었다. 이러한 설명은 마을의 입지가 사회·경제·정치 환경 등에 변화하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동족마을의 입지적 특성은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2) 사회적 변화 - 동족의 구성과 마을 인구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은 동족마을의 종족과 인구, 주민들 간의 관계, 관습, 혼인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권내현, 2006; 옥한석, 1986; 이성임, 2008; 이창기, 2004, 2006; 장보웅, 1983). 동족마을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 가운데 마

을의 (재)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은 동족의 구성과 마을 인구이다.

이창기(2006)에 의하면, 한국 농촌의 사회관계를 논의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종족체계(혈연성)와 공동체체계(지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종족마을에서 신분적 지위가 비슷한 여러 성씨들이 장기간 공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성씨나 세 성씨가 한마을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세력이 강한 어느 한 성씨가 마을을 석권하게 되고, 세력이 약한 성씨들은 점차 마을에서 밀려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족마을은 한 성씨가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는 집성촌으로 이루게 된다”(이창기, 2006, 330). 동족마을에서 한 개의 성씨가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실제적으로 몇 개의 성씨들이 함께 살고 있는 동족마을도 많다. 김춘택은 안동의 동족마을인 가일의 성씨 분포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성씨는 안동 권씨가 26%, 순흥 안씨가 11%, 안동 김씨가 4%, 기타 성씨가 57%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동족마을의 인구분포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김춘택, 2006, 23). 동족마을을 구성하는 종족은 부계의 계승의식에 기반을 둔 동족의식을 갖는다. 김필동에 의하면, “한국의 종족은 전통사회의 중층적인 부계친족집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양반문화의 전통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토대였다”(김필동, 2000, 261). 그리고 종족의식은 동족 마을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의 경관을 창출하였다(장보웅, 1983; 김덕현, 1983; 전종한, 2005a, b).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도시화는 동족마을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동족마을에서 동족의 유지는 혼인에 의한 가족의 재생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혼인에 의해 다른 동족집단과 유대를 맺으면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전종한, 2005a).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시켜 나가게 마련인데, 특히 혼인은 인척관계(姻戚關係)에 의한 사회적 유대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정승모, 1983,

122). 조강희(1996)는 영남지방의 양반가문의 혼반(婚班)을 분석하여 양반들이 혼인을 통해 결합하여 향촌사회의 지배계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동족마을에서의 혼인은 통혼망과 통혼권⁹⁾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권내현, 2006; 이성임, 2008; 정승모, 1983; 조강희, 1996). 정승모(1983)에 의하면, 반촌의 동족마을은 지역 내·외혼이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민촌의 각성마을은 마을 혹은 지역 내혼이 주로 이루어진다. “양반들은 혼처를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앙 관계 진출의 감소로 인한 통혼권 축소와 주변에 형성된 유력 동족마을의 영향으로 인근 근현, 멀어도 도내에서 대부분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권내현, 2006, 130~131).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농촌 인구를 도시로 흡수하면서 농촌의 사회·경제를 크게 변화시켰다. 농촌지역의 변화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농촌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다(김부성, 2009, 50).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농업생산력, 농촌 경관의 유지·관리, 농촌 지역사회의 재생산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농촌의 젊은 연령층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출산수준은 더욱 낮아져서 노동력 부족과 인구의 노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권태환, 1992, 44).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동족마을에서 동족원의 인구를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동족마을에서 20~30대의 젊은 세대의 감소가 현저하다. 이것은 동족마을의 생산력과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동족마을의 해체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장보웅, 1983, 27). 김춘택(2006)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 이후 안동의 동족마을인 가일의 가구수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1년에 가일 마을의 가구는 160호이고 인구는 929명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 가구가 89호이고 인구는 247명이었다(김춘택, 2006, 294).

3) 경제적 변화 - 토지이용과 경작 형태

동족마을의 유지를 위한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농경지와 이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김건태, 2009; 김춘택, 2006; 김필동, 2006; 이상울, 2007). 김건태(2009)는 20세기 전반 장흥군 용산면 칠리안속 마을을 사례로 동성마을의 토지소유 변화를 고찰하였다. 20세기 전반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도 늘었다. 또한 도로가 생기고 대지가 늘어남에 따라 농토가 줄어들었다. 즉 토지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1인당 토지 소유면적은 감소하였다(김건태, 2009, 33). 김필동(2006)은 민촌(民村)의 특성을 지닌 동족마을에서 일어난 경제생활, 특히 토지이용 형태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사례 연구 마을인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의 토지이용은 3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마을의 토지이용은 거의 전적으로 자연환경에 의존하였다. 장하리 주변으로 흐르는 금강이 마을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땅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홍수 때는 농지가 침수되고,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김필동, 2006, 51). 두 번째 단계에서 강가에 미루나무를 대규모로 심어 하천부지를 농지로 전환시킴에 따라 마을의 농지가 늘어났다. 나무를 심고 제방을 쌓는 일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제방 안쪽으로 넓고 비옥한 농경지를 확보하게 되면서 마을의 경제사정은 크게 좋아졌다. 마지막 단계는 1980년대 말부터 마을의 농경지에 시설원예를 재배하면서 시작되었고, 1990년대 이후 마을은 부촌으로 변화하였다. “실제로 오늘의 장하리는 부여군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고, 이러한 환경 조건이 청년층 일부로 하여금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고, 종족집단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필동, 2006, 54~55). 김춘택(2006)은 토지대장(1990)을 토대로 안동의 동족마을인 가일마을의 토지현황과 소유자를 분석하였다. 마을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 1,516,737m² 가운데 답(畓)

이 60.2%이고, 전(田)이 16.7%이고, 나머지는 기타 임야나 도로, 대지 등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일 마을의 중심 성인 안동 권씨가 전체 논 가운데 50.6%를 그리고 전체 밭 가운데 48%를 소유하고 있었다(김춘택, 2006, 295). 이 마을의 성씨는 안동 권씨가 26%, 순흥 안씨가 11%, 안동 김씨가 4%, 기타 성씨가 57%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안동 권씨가 마을 토지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수옥·유병민(2003)은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농촌사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어 도·농간에 격차가 증가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새마을 운동, 농어촌 생활 개선사업, 등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농촌의 젊고 우수한 인력과 자본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도·농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김수옥·유병민, 2003, 3). 지난 30년간(1970~2000년) 경지 면적과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농가부채는 크게 증가하였다. 경지구묘별 농가호수의 비율을 보면, 같은 기간에 경지가 0.5ha 미만의 농가 호수의 비율은 32.6%에서 32.1%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경지가 2ha 이상인 농가 호수의 비율은 6.7%에서 14.5%로 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후자는 농작물 생산체계가 자급자족적 형태에서 자본주의적 형태로 바뀌면서 농가가 넓은 농경지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영농형태별 농가호수의 변화를 보면, 1970년 전체 농가(2,483,318호) 가운데 과수와 채소를 재배한 농가는 1.8%(45,821호)와 10.1%(251,975호)였지만 2000년 전체 농가(1,383,468호) 가운데 두 농작물을 재배한 농가는 10.4%(143,632호)와 17.2%(238,291호)였다(김수옥·유병민, 2003, 9). 1960년대 이후 농업적 토지이용이 자급자족적 형태에서 상업적 형태로 바뀌는 현상은 산지촌에서도 나타났다. 오남현(2002)은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의 산지촌에서 일어난 토지이용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1960년대 초·중반의 주된 농산물은 감

자, 두류, 옥수수, 조이고 1960년대 말 이후 담배, 고추, 채소 등의 환금작물이 도입되었고, 1980년대에는 채소, 담배, 고추 중심의 상업적인 토지이용 형태로 완전히 변화되었다”(오남현, 2002, 95). 박규택(2004)은 상주지역에서 벼농사를 주로 하는 마을과 과수(포도) 농사를 주로 하는 마을의 사회·경제 변화를 연구하였다. 1980년대 이후 두 촌락은 재배 작물과 생산양식에 따라 상이한 경로를 따라 변화하였다. 즉 벼농사에 의존하는 마을인 척동 1리는 전통적인 생산양식을 지속시키고 있는 반면 상업적 과수로 포도를 재배하는 마을인 신천 2리는 상업적 생산 양식으로 전환하였다.

3. 두 동족마을의 위치와 자연환경

상곡마을은 고령읍의 동쪽과 대구광역시의 서쪽에 맞닿아 있는 다산면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마을은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낙동강과 대구광역시를 감싸면서 흐르는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생성된 넓은 평야지대의 서쪽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앞쪽에 낙동강과 인접한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마을의 우측과 좌측은 100m 정도의 낮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그림 1). 마을 앞쪽에 위치한 낙동강은 1990년대 초반 사문진교¹⁰⁾가 건설되기 이전 주민들이 주변지역, 특히 대구광역시와 일상적으로 왕래하는데 큰 장애물이었다. 그리고 마을의 북서쪽에 성주군 용암면이 있지만 산지로 가로막혀 있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사문진교가 개통한 이후 상곡마을을 포함한 다산면은 대구광역시의 외곽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대도시 근교 농업, 아파트 단지, 공장 지대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 형태와 상이한 건축물들, 공장, 창고, 아파트 등을 통해서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림 1. 상곡마을의 위치와 자연 환경



그림 2. 수촌마을의 위치와 자연환경

상곡마을은 대구분지의 서쪽 끝 부분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내륙분지형 기후지대에 속한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근대적 수리시설이 축조되기 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논농사 혹은 밭농사를 짓는 데 힘들었다. 1960년대 이전 주민들의 농경지는 낙동강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발달한 소규모 자연 늪지 혹은 인공 연못 주변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그림 1>을 보면, 상곡마을 주변의 주택과 공장 지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평야지대는 농경지로 개발되어 있다.

성주군의 북서쪽에 위치한 벽진면에 소속된 수촌마을은 낙동강에서 멀리 떨어진 성주 분지의 산지 하단부에 형성된 들판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그림 2). 마을의 서쪽, 북쪽, 동쪽은 높은 산지가 있으며, 남동쪽에 이천(伊川)따라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산지의 여러 곳에서 흘러들어 만들어진 이천은 전통적으로 마을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원천이었다. 수촌마을은 벽진면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10분 이내 거리에 면사무소, 각종 공공시설, 초등학교가 있다. 마을의 남동쪽으로 평탄한 지형이 펼쳐져 있어 과거

부터 주민은 이 방향으로 외부와 교류를 하였다.

마을은 내륙 분지형 기후지대에 놓여있어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곳이다. 또한 주변 지형은 마을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의 형성에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마을의 북서쪽에 위치한 높은 산지는 북서계절풍을 막아 주어 겨울 기온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남동쪽으로 열려있는 평야는 여름의 남동풍이 마을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기온을 다소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후와 지형은 수촌마을의 수박과 참외 농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4. 동족마을의 사회적 변화

1) 동족의 구성

다산면 상곡마을은 이씨가 그리고 벽진면 수촌 마

을¹¹⁾은 이씨, 도씨, 여씨가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동족 마을이다. 상곡 마을의 전의 이씨는 고려 건국 당시 태조의 금강 도하를 도와준 이도(李棹)를 시조(始祖)로 하고 있다. 15세 후손인 이필(李泌, 1521 출생)이 경기도 부평에서 대구 하빈(河濱)으로 이주하였고, 18세 후손인 이지화(李之華, 1588~1666년)가 현재의 다산면 상곡마을로 이주하여 살았고, 전의 이씨의 입향조이다.

벽진면 수촌 마을은 이씨, 도씨, 여씨가 집단적으로 거주하여 왔다. 현재 수촌마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은 성주 도씨(都氏)이다. 벽진면 마을의 입향조는 윤길(允吉)이며, 고려말 성주의 서쪽에 위치한 운곡(雲谷) 횡거촌(橫渠村)(벽진면 수촌 마을)으로 난세를 피하여 이주하여 왔다. 초기 마을 위치는 들판의 한가운데가 아닌 산자락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도영희, 전면장과 면담).

〈표 2〉은 195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 상곡과 수촌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성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1955년에 상곡마을은 이씨와 정씨가 중심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후 이씨가 마을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2005년에 상곡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나타난 성씨의 구성을 보면, 총 24세대 가운데 12명(50%)이 이씨였으며, 배씨, 장씨, 손씨가 각각 2명이었다. 1955년과 비교해 보면, 상곡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마을의 중심 성씨로 남아 있다. 1955년 수촌마을의 중심 성씨는 여씨와 도씨였으며,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후 80년대 초반까지 도씨의 수는 감소한 반면 여씨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2005년에 수촌마을은 도씨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촌 4리의 총가구 수는 100호 정도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도씨 집안이고, 나머지 가구들도 도씨와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¹²⁾

두 동족마을에서 세대주의 배우자 성씨를 보면, 상곡마을은 1950년대 중반이후 이씨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씨, 김씨, 박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 수촌마을의 경우, 이씨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김씨, 박씨, 배씨가 많다(표 3). 두 동족마을의 세대주의 성씨와 비교해 보면, 배우자의 성씨는 보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배우자의 출생지를 보면, 상곡마을은 고령과 성주 그리고 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수촌마을은 성주에 집중되어 있다(표 4). 통혼이 특정 지역과 성씨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산지 지형과 교통과 통신의 미발달로 인한 교류의 한계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배우자 선택에 있어 친척·사돈에 의해 중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두 동족마을의 통혼권이 경북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동족마을과 지역사회 내부에 부계와 모계 친족 혹은 인

표 2. 상곡과 수촌마을 세대주의 성씨

(단위: 가구)

상곡마을				수촌마을			
1955년	1970년대 초반	1980년대 초반	2005년	1955년	1970년대 초반	1980년대 초반	2005년
이(25)	이(14)	이(9)	이(12)	여(14)	여(13)	여(14)	여(7)
정(13)	배(2)	정(6)	배(2)	도(13)	도(4)	도(5)	도(18)
서(3)	정(2)	강(2)	장(2)	이(7)	이(6)	이(12)	이(4)
김(2)		손(2)	손(2)	강(2)	강(3)	강(2)	서(2)
					김(4)	김(5)	김(3)
					박(2)		

자료: 1955년, 1970년대 초반, 1980년대 초반은 다산초등학교와 벽진초등학교 내부자료, 2005년은 설문조사

표 3. 상곡과 수촌마을 배우자의 성씨

(단위: 명)

상곡마을				수촌마을			
1955년	1970년대 초반	1980년대 초반	2005년	1955년	1970년대 초반	1980년대 초반	2005년
이(9)	이(8)	이(6)	이(9)	이(13)	이(6)	이(12)	이(7)
정(7)	정(3)	김(6)	김(4)	김(3)	김(6)	김(9)	김(7)
박(4)	장(3)	박(4)	박(3)	최(3)	박(8)	최(3)	배(4)
성(4)	김(3)	조(2)	허(2)	유(2)	유(3)		박(3)
나(3)	기(2)			여(2)	여(2)		도(3)
							정(3)

자료: 1955년, 1970년대 초반, 1980년대 초반은 다산초등학교와 벽진초등학교 내부자료, 2005년은 설문조사

표 4. 배우자의 출생지 (단위: 명)

상곡마을	수촌마을
고령(7), 성주(7)	성주(27)
대구(4)	대구(5)
안동(2), 칠곡(2), 합천(2)	구미(2), 칠곡(2)
부산(1), 여수(1), 장성(1)	김천(1), 군위(1), 의령(1), 삼천포(1)

자료: 설문조사

이고 있다. 이는 상곡마을과 다산면이 대구광역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그림 1). 즉 1990년대 이후 대구광역시의 세력이 외곽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과 공장이 입지하게 되었고, 이는 다산면과 상곡마을과 같은 외곽지역의 인구증가를 가져왔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낙동강에 의해 단절된 두 지역, 대구광역시 회원읍과 다산면을 연결하는 사문진교의 완공은 대구광역시의 주택, 공업 등의 활동이 외곽지역인 다산면과 상곡마을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상곡마을의 세대수는 인구수의 변화와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군과 다산면의 세대수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족형태의 변화, 대가족에서 소가족(혹은 부모와 자녀 중심의 가족)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세대당 인구의 변화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2000년대 후반까지 상곡마을, 다산면, 고령군 모두에서 세대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 상곡마을의 세대당 인구는 6.6명이었지만 2009년의 경우는 2.3명으로 약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이후 수촌마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도 마을 인구는 1970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표 6). 이러한 변화는 성주군과 벽

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¹³⁾

2) 지역과 마을의 인구변화

동족마을은 인구가 일정한 수준으로 재생산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상곡마을의 인구변화를 군과 면의 인구변화와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상곡마을의 인구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 감소한 뒤 증가하는 현상¹⁴⁾을 나타내고 있다(표5). 이러한 현상은 다산면의 인구변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군의 인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뒤 약간 증가하다 다시 감소 혹은 정체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1990년대 초·중 이후는 상곡마을의 경우는 상이한 형태를 보

표 5. 상곡마을의 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고령군			다산면			상곡마을		
	인구	세대	세대당 인구	인구	세대	세대당 인구	인구	세대	세대당 인구
1970	67,539	12,399	5.4	7,689	1,346	5.7	413	63	6.6
1975	63,005	12,181	5.2	6,781	1,315	5.2	401	74	5.4
1980	48,961	11,238	4.3	5,255	1,203	4.4	-	-	-
1985	41,192	10,904	3.8	4,072	1,122	3.6	-	-	-
1990	35,298	10,706	3.4	3,515	1,081	3.3	-	-	-
1995	36,350	12,277	2.9	4,072	1,367	3.0	252	83	3.0
2000	38,221	13,772	2.8	7,478	2,600	2.9	262	91	2.9
2005	35,143	14,103	2.5	7,248	2,758	2.6	302	122	2.5
2009	35,925	14,944	2.4	8,918	3,545	2.5	329	145	2.3

자료: 고령군청

표 6. 수촌마을의 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성주군			벽진면			수촌마을		
	인구	세대	세대당 인구	인구	세대	세대당 인구	인구	세대	세대당 인구
1970	107,263	19,326	-	9,778	1,765	5.5	472	88	5.4
1975	100,022	19,055	-	8,823	1,670	-	451	82	5.5
1980	74,830	16,734	4.5	6,883	1,518	4.5	347	75	4.6
1985	67,500	16,410	4.1	6,205	1,508	4.1	345	80	4.3
1990	56,697	15,953	3.6	5,175	1,476	-	328	77	4.3
1995	53,899	18,421	2.9	4,531	1,527	3.0	289	89	3.3
2000	51,617	18,362	2.8	4,300	1,545	2.8	271	90	3.0
2005	46,960	18,999	2.5	3,801	1,540	2.5	248	93	2.7
2009	45,616	19,839	2.3	3,565	1,541	2.3	239	101	2.4

자료: 성주군청

진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곡마을의 인구 변화 비교해 보면, 1990년대에도 수촌마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대도시(혹은 신흥공업도시)의 세력권 밖에 위치한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촌마을의 세대변화는 인구의 경우와는 달리 1980년대 까지 감소한 뒤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대수의 변화는 성주군과 벽진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촌마을의 세대당 인구는 1970년 5.4명에서 2009년 2.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도 설문지 조사에 의하

면, 수촌마을의 세대당 자녀수가 가장 많은 경우는 6명(3호)이며, 가구주의 연령은 80세, 78세, 71세이다. 그리고 2명의 자녀수를 둔 가구가 19호로 가장 많고, 1명의 자녀수를 둔 가구도 2호가 있다.

상곡과 수촌의 동족마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하고 이들이 결혼하여 마을에 거주해야 한다. 물론 외부 인구의 유입에 의해서 마을이 유지될 수 있다. 동족마을의 인구는 한 개 혹은 소수의 동족과 이와 연관된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들과 무관한 일반인들이 이주해 와서 사는 경우는 드물다.

표 7. 상곡과 수촌마을의 연대별 출생 자녀수

(단위: 명)

구분	연대					합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상곡마을	38	40	50	29	17	174
수촌마을	44	51	43	25	3	166

자료: 다산면사무소와 벽진면사무소 내부자료

두 마을의 자녀 출생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가장 많았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7). 특히 1970년대 수촌마을에서 51명의 아이가 태어난 반면 2000년대에는 단 3명이 출생하였다. 경북의 농촌마을에서 태어나는 자녀의 수가 크게 감소한 현상은 상주권에 속하는 두 개의 마을, 척동 1리와 신천 2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두 마을의 자녀 출생 수는 1960년대에 가장 많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대 두 마을에서 신생아가 거의 태어나지 않았다(박규택, 2004, 747~748).

3) 마을 자녀의 이주와 부모와의 관계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농촌의 인구, 특히 유년과 청년의 인구가 학교와 직장 등의 이유로 대규모 도시로 이동하였다. 농촌의 인구가 타 지역, 특히 도시로 이동하는 중요한 요인은 취업 혹은 자영업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 진학 또는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의 선택과 관련된 교육적 요인, 그리고 결혼 혹은 가족의 재결합과 관련된 가족적 요인이 있다(김태현, 2001, 18). 상곡과 수촌

마을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도시로 이주한 시기를 보면,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증가한 뒤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표 8). 두 마을 자녀들의 외부 이동이 활발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상곡마을은 12명과 32명이 그리고 수촌마을은 27명과 39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두 마을 자녀들의 이주는 2000년대에 수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지속되었다. 두 동족마을의 자녀들은 대구·경북으로 가장 많이 이주하였고, 다음으로 서울·경기와 울산으로 이주하였다. 1970년대 이후 상곡마을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자녀수 76명 가운데 49명이 대구로 그리고 7명이 경북으로 이주하였고, 7명이 서울·경기로 이주하였다. 수촌마을의 경우, 총이주 자녀수 84명 가운데 39명이 대구로 그리고 27명이 경북으로 이주하였고, 10명이 서울·경기로 이주하였다. 개별 가구의 자녀들이 이주한 형태를 살펴보면, 상곡 마을의 이○○(63세, 전의 이씨)의 자녀 5명 가운데 큰 딸(41세)과 둘째 딸(38세)은 시집을 가서 대구에 살고 있고, 세째 아들(36세)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넷째 딸(31세)과 다섯째 아들(28세)은 상곡에서 자영업과 주부로 살고 있다. 수촌마을에 살고 있는 도○○(73세, 성주도씨)의 자녀 5명(3남 2녀)은 결혼한 뒤 모두 대구로 이주

표 8. 상곡과 수촌 마을 자녀의 이주

(단위: 명)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합계
상곡마을	1	12	32	28	73
수촌마을	2	27	39	12	80

자료: 다산면사무소와 벽진면사무소 내부자료

하여 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경북지역의 농촌 자녀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은 상주권에 속한 일반 농촌 마을에서도 상곡과 수촌 마을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함창읍 척동 1리와 모동면 신천 2리 마을 주민의 자녀들의 상당수가 타 지역, 특히 수도권과 대구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 척동 1리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자녀 수 170명 가운데 71명과 36명이 서울과 대구로 이주하였고, 신천 2리의 경우 이주한 총자녀 수 89명 가운데 36명과 16명이 서울과 경기도로 각각 이주하였다(박규택, 2004, 748).

농촌마을의 자녀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고향에 남아 있는 부모들과 새로운 (비)물질적 관계망이 형성된다. 물질적 지원 관계를 보면, 상곡마을의 경우에 부모의 지원이 자녀의 생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촌마을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수촌마을의 주민은 참외 농사를 지으면서 상당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곡마을의 경우 자녀의 지원이 부모의 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촌마을의 경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곡마을의 자녀들은 외지에서 살면서 고향의 부모에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규택(2004)은 상주권에 속한 일반 농촌마을, 함창읍 척동 1리와 모동면 신천 2리의 주

민들에게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두 마을의 인적·물질 자원이 현재(2004년)에도 도시 지역의 자녀들에게로 이동되고 있지만 역 방향의 흐름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자녀들을 타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교로 보내 교육을 시킴에 따라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 왔다. 그리고 현재에도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박규택, 2004, 750). 벽진면 수촌마을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도○○(50세)는 자녀 교육비가 가족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참외 값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자재비(비닐, 종자구입, 영양제, 비료, 미생물 퇴비 등)와 인건비 등은 계속해서 상승했다. 밭을 지면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이 많이 들어가 밭이 많다”(2010년 4월 18일 면담).

두 마을 모두 부모와 자녀 간에 월 3~4회 정도 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방향을 보면, 두 마을 모두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를 약간 많이 하는 것 같다. 또 다른 측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통화를 많이 하면 자식들도 부모에게 전화를 많이 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도움 관계

(단위: 명)

	부모가 자녀를 도와줌		자녀가 부모를 도와줌	
	상곡 마을	수촌 마을	상곡 마을	수촌 마을
생활에 큰 도움	0	1	2	1
어느 정도 도움	2	8	3	0
용돈 정도	3	3	9	6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8	4	6	7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8	4	1	6
계	21	20	21	20

자료: 설문조사

표 10.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관계

(단위: 명)

월 통화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를 함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를 함	
	상곡 마을	수촌 마을	상곡 마을	수촌 마을
1~2회	3	4	2	2
3~4회	6	5	3	5
5~6회	1	0	2	1
7~8회	1	1	0	3
9~10회	4	3	6	3
계	15	14	13	14

자료: 설문조사

표 11. 마을 주민(피조사자)의 자부심과 거주 유무

(단위: 명)

	마을에 대한 자부심			마을에 지속적 거주 유무	
	상곡	수촌		상곡	수촌
있다	18	16	예	23	41
없다	12	21	아니오	7	1
계	30	37	계	30	42

자료: 설문조사

주민이 느끼는 마을에 대한 자부심은 상곡마을의 경우는 '있다'가 '없다'보다 약간 많은 반면에 수촌 마을은 반대의 경우이다(표 11). 상곡마을의 경우, 소수 주민들은 반촌(혹은 집성촌)이고 예의범절¹⁵⁾과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마을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수촌 마을의 주민의 자부심은 씨족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고 특수작물(참외)로 인해 살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마을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의 주민은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수촌마을의 응답자는 거의 모두 현재의 마을에 거주하기를 바라고 있다.

5. 동족마을의 경제적 변화

1) 토지 이용

상곡마을과 수촌마을 주민의 경제 활동과 이에 따른 부의 축적은 마을 내부와 주변의 토지 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민은 토지의 경작을 통해 동족마을의 부와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과거 상곡마을의 농경지는 천수답이었다.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여 마을 앞 가까운 농경지에는 벼농사를, 조금 떨어진 곳에는 밭농사를 지었다. 가뭄이 들면 논에도 밭작물, 조, 피를 심었다. 따라서 소수의 가구를 제외한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았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상곡마을의 처녀들은 쌀 3말도 못 먹고 시집간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1910년대 후반 상곡마을 주변과 약간 떨어져 있는

낙동강 연변의 평야 지대에 있어서 토지 이용과 경관은 현재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¹⁶⁾ 당시 마을 주변의 토지 일부가 논 혹은 밭으로 이용되었다. 낙동강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강변에 인공 제방이 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람원 지대에 마을이 입지하거나 농경지로 이용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동강의 자연 제방과 이에 근접한 범람원의 일부 토지는 밭과 과수 농사로 이용되었다. 전체적으로 1910년대 후반 상곡마을 주변과 평야 지대의 농경지 이용률은 낮았다.

1960년대 중반 마을 주변과 평야 지대의 많은 토지가 경작지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¹⁷⁾ 다산면 평야 지대의 북동 방향에 인공제방이 구축되고, 양수시설도 설치되었다. 이를 통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인공제방 근처에 마을 입지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평야 지대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았으며, 산지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하천의 유로가 유지되고 있

었다. 농경지는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1970년대 이후 상곡마을 경제 활동에 큰 변화를 준 것은 마을 옆 밭에서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일이었다. 마을 옆 토지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논농사를 짓지 못하고 콩 혹은 잡곡을 심었다. 군에서 경지 정리를 한 뒤 포도 심기를 장려함에 따라 포도밭으로 변화하였다. 포도 재배는 쌀농사보다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1980년대 이후 마을 앞 논이 포도밭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마을 앞 논 면적은 감소한 반면 포도 재배 면적은 늘어났다. 지형도¹⁸⁾에 의하면, 마을 뒤와 옆쪽의 소규모 토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과거 마을 앞의 논과 포도 과수원으로 이용되던 토지의 대부분은 공장, 창고, 주택 용지로 변화하였다. 그림 3(2010년 4월 18일 촬영)을 보면, 상곡마을의 옆 농경지가 과거 포도밭으로 이용되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진에서 상곡마을은 사진의 우측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도밭이 위치한 마을 좌측의 경사진 토지의 일부가 농경지로



그림 3. 상곡마을 앞과 좌측의 혼종적 토지이용 형태

이용될 뿐 마을 주변의 거의 모든 토지는 소규모 공장, 창고, 아파트 단지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사문진교가 건설되고 대구광역시의 경제 활동과 주거지가 외곽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상곡마을 주변의 농경지는 급속하게 도시적 토지이용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림 4(2010년 4월 18일 촬영)는 상곡마을 앞쪽의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마을은 뒷 쪽에 보이는 산 아래에 있고, 앞 쪽으로 포장된 직선도로가 나 있으며 도로 양쪽에 창고와 소규모 공장이 줄지어 입지해 있다. 19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토지는 포도밭과 논으로 이용되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 수촌마을 주민의 생활도 상곡마을과 비슷하였다. 쌀이 부족하여 쌀과 썩을 섞어 죽을 만들어 먹었다. 벼농사를 지어 놓으면 일제가 공출로 다 빼앗아 갔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쌀을 단지에 숨겨 두고 조금씩 꺼내어 어른 밥상을 차렸다. 1910년대 후반 수촌리(당시 해평동, 행촌, 중평, 부흥

마을로 구성) 마을 주변의 평야 지대는 거의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해 줄 벽진저수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마을 옆으로 흐르는 이천에 인공제방이 쌓여 있지 않았다.

1960년대 중반 수촌리 마을 주변의 평야 지대는 거의 모두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수촌리에서 초전면으로 가는 계곡에 벽진저수지가 건설되었고, 저수지 물이 흘러내리는 작은 하천에 인공 제방이 만들어졌다. 이천의 좌측에도 제방이 쌓아졌다. 농경지에 경지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80년대 상업적 참외 재배는 마을을 크게 변화시켰다.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길이 포장되고 직선의 농로가 만들어 지고, 농사를 짓기 위한 주요 운송 수단으로 리어카 혹은 구루마를 이용하다 1970년대 이후 경운기가 도입되었다. 벽진면은 온난하고 건조한 기후 조건을 이용하여 과거부터 수박을 많이 재배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참외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대구모로 경작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4. 상곡마을 앞의 토지이용 경관



그림 5. 수촌마을 주변의 토지이용 형태

현재 수촌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경작지는 거의 모두 참외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에서 떨어진 산자락 주변의 소규모 토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천의 상류계곡에 봉학저수지가, 마을 옆 들판의 가장자리로 흐르는 작은 하천의 상류 계곡(초전면으로 통하는 길 좌측)에 벽진저수지가 조성되어 있다. 연봉산의 좌·우측 산지의 계곡에 건설된 두 개의 저수지는 수촌마을의 농경지 뿐 만 아니라 벽진면 전체 농경지에 전천후 농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림 5(2010년 4월 18일 촬영)는 수촌마을 뒤쪽의 토지이용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의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수촌마을의 농민들로 구성된 연봉산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참외 선과장이고 옆 건물은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이다. 마을은 두 건물 뒤편에 위치하며, 주변의 토지는 거의 대부분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참외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농토 사이의 길은 경운기와 차가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직선화되어 있으며, 참외가 재배되지 않은 약

간의 농지는 논농사에 이용되고 있다.

2) 경작 면적과 형태

1970년대 초반 두 동족마을의 개별 가구가 경작한 농경지의 면적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000~2,000평의 농지를 경작한 농가가 있는 반면에 5,000평 이상을 경작한 농가도 있었다(표 12). 1970년대 초반 수촌마을에서 3가구가 5,0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였다. 2005년에는 두 마을 농가의 경작지 면적이 어느 정도 집중화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상곡마을은 1,000~3,000평의 농토를 경작하는 가구가 가장 많다. 또한 4,000~5,000평을 경작하는 경우도 5가구가 있다. 이에 비해 수촌마을은 2,000~4,000평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가 가장 많고, 5,000평 이상인 경우도 5가구가 있다. 두 마을 농가의 경작지 면적을 비교하면, 상업적 작물재배지인 수촌마을의 농가가 대도시의 외연적 팽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표 12. 마을 농가의 경작지 면적

(단위: 평, 가구)

경작지 면적	상곡 마을		수촌 마을	
	1970년대 초반	2005년	1970년대 초반	2005년
1,000 미만		2		1
1,000 이상~2,000 미만	2	8	4	9
2,000 이상~3,000 미만	1	4	2	13
3,000 이상~4,000 미만	2	1	2	13
4,000 이상~5,000 미만	2	5		2
5,000 이상	1	2	3	5
합계	8	22	11	43

자료: 1970년대 초반은 다산초등학교, 벽진초등학교 내부 자료, 2005년은 설문조사

표 13. 상곡마을 농가의 농경지와 경작 형태

(단위: 평)

구분	총계	자작지(논)	자작지(밭)	임대지(논)	임대지(밭)	임차지(논)	임차지(밭)
1	1,200					1,200	
2	2,400	2,400					
3	4,000	4,000					
4	2,000			1,000		2,000	
5	4,000			4,000			
6	800		600		200		
7	4,000		1,000			3,000	
8	1,700		700			1,000	
9	2,000		200			1,800	
10	1,100	500		600			
11	1,300		300			1,000	
12	5,000	3,000		1,000		1,000	
13	1,200	400		800			
14	4,000	1,000		3,000			
15	2,600	1,200			1,400		

자료: 설문조사

상곡마을의 경우보다 넓은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3〉은 상곡마을의 개별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과 농경지의 소유와 경작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상곡마을의 농가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가구 소유의 토지를 스스로 혹은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많은 농가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

고 있고 있다. 2번 농가는 논 2,400평을 자력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반면 5번 농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논 4,000평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 7번 농가는 자기 소유의 밭 1,000평과 타인 소유의 논 3,000평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고, 14번 농가는 자기 소유의 논 4,000평 가운데 1,000평은 자력으로 농사를 짓고 나머지 3,000평은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

〈표 14〉는 수촌마을의 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의 면적과 경작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수촌마을의 대부분 농가는 자기 소유의 농지에 토대를 두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자작지와 임차지의 대부분은 논으로 표기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참외 농사에 이용되고 있다. 1번 농가는 자기 소유의 논 2,200평에 한정시켜 자력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반면 6번 농가는 2,000평의 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2번과 10번 농가는 자기 소유의 농지는 없으

며 타인 소유의 논 3,000평과 2,400평을 각각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가장 넓은 농경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3번 농가는 자기 소유 4,400평과 임차지 2,200평을 합하여 총 6,400평의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

상곡과 수촌마을 농가의 생산 양식을 보면, 상곡마을은 가족 노동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반면 수촌마을은 가족노동과 임금노동을 혼합하고 있다(표15). 전통적으로 농가가 실행하고 있는 협력 노동형태인 품

표 14. 수촌마을 농가의 농경지와 경작 형태

(단위: 평)

구분	총계	자작지(논)	자작지(밭)	임대지(논)	임대지(밭)	임차지(논)	임차지(밭)
1	2,200	2,200					
2	3,000					3,000	
3	6,400	4,000	4,00			2,000	
4	5,200	4,000				1,200	
5	3,000	2,000				1,000	
6	2,000			2,000			
7	1,800	400		1,400			
8	2,600	1,200				1,400	
9	4,000	1,800				2,200	
10	2,400					2,400	
11	3,200	1,200				2,000	
12	5,500	4,000				1,500	
13	3,600	1,000				2,600	
14	2,000	1,200		800			
15	3,200	2,600				600	

자료: 설문조사

표 15. 상곡과 수촌마을 농가의 생산 양식

(단위: 가구)

구분	상곡마을			수촌마을		
	가족 노동	임금 노동	품앗이	가족 노동	임금 노동	품앗이
20%		3	3	3	19	17
30% ~ 40%	1	2			6	1
50% ~ 60%	1	2		7	2	
70% ~ 80%	4			20	1	
90% ~ 100%	11			11	1	
계	17	7	3	41	29	18

자료: 설문조사

앗이를 이용하는 빈도에 있어서도 두 마을에서 차이가 있다. 상곡마을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20% 정도의 노동을 품앗이로 해결한다는 농가가 3가구인데 비해 수촌마을의 경우는 17가구이다. 가족과 임금 노동을 혼합하는 경우, 상곡마을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가족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농가가 11가구이고 20% 정도는 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농가는 3가구이다. 수촌마을의 경우, 70~100%의 농사는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밖은 임금노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마을 농가의 생산양식을 비교하면, 수촌마을이 상곡마을보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력, 가족과 임금노동 그리고 품앗이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6. 마을의 농업 상황과 정부·농협의 역할에 대한 주민 인식

마을의 현재 농업 상태에 대해 상곡마을과 수촌마을 주민의 인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표 16). 상곡마을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현재 농업 상태를 보다 나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비해 수촌마을 주민은 마을의 농업 상태를 보통 혹은 괜찮은 편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 두

마을 주민의 인식 차이는 거주 마을의 현재 농업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곡마을 주변의 토지는 농경지가 공장, 창고, 주택 용지로 급속하게 바뀌어 가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토지를 농경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의 전통적 농업이 전면 해체될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설문에 응한 주민 대부분(20명 가운데 10명)이 마을의 농업상태를 아주 나쁜 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촌마을 주변의 토지는 거의 참외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참외 농사는 전통적인 농사에 비해 일은 힘들지만 수익은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해 농가 소득이 증대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후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대규모 참외 재배는 과거에 비해 마을의 경제적 수준을 상당히 높여 주었다. 따라서 수촌마을 주민은 마을의 현재 농업상태를 보통(41명 가운데 22명) 혹은 괜찮은 편(41명 가운데 7명)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게 인식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마을 주민은 현재와 10년 후 한국의 농업상태에 대해 조금 나쁘거나 아주 나쁜 편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마을의 농업상태에 대한 주민 인식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0년 후 한국의 농업상태에 대해서 상곡마을 주민은 수촌마을 주민에 비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19명 가운데 14명

표 16. 마을과 한국 농업 상황에 대한 주민 인식

(단위: 명)

구분	마을의 농업상태		한국의 농업상태		10년 후 한국의 농업상태	
	상곡마을	수촌마을	상곡마을	수촌마을	상곡마을	수촌마을
어느 정도 도움	1	21		21		14
대단히 좋다		1				1
괜찮은 편이다	4	7			3	5
그저 그렇다	4	22	2	5	1	1
조금 나쁜 편이다	2	10	7	9	1	14
아주 나쁜 편이다	10	1	9	27	14	20
계	20	41	18	41	19	41

자료: 설문조사

표 17. 농촌 문제에 대한 주민 인식

(단위: 명)

구분	1순위 문제		2순위 문제	
	상곡 마을	수촌 마을	상곡 마을	수촌 마을
농산물 유통	5	5	14	1
농촌 여성 과다노동				1
농촌 의료	1		3	3
농가 부채	4	21	3	3
농업 정책의 무계획성	3		1	5
농촌 총각 결혼		1	1	4
농촌 자녀 교육	1			5
농촌 일손 부족	4	4	3	2
농산물 가격		5	1	6
농산물 수입개방		5	1	10
계	18	41	27	40

자료: 설문조사

(74%)이 미래 한국의 농업상태를 아주 나쁜 편으로 인식한 반면 후자의 경우 41명 가운데 20명(49%)이 아주 나쁜 편으로 인식하였다. 한국의 현재와 미래 농업상태를 보통 혹은 괜찮을 것으로 인식한 주민은 두 마을 모두에서 소수였다.

상곡마을과 수촌마을의 주민은 농산물 유통, 농가 부채, 노동력 부족을 현재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였다(표 17). 후자는 전자와 달리 농산물 가격과 농산물 수입개방도 중요한 농촌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수촌마을 주민 41명 가운데 21명(51.22%)은 농가 부채를 중요한 농촌 문제로 인

식하였다. 두 번째로 중요한 농촌 문제로 상곡마을 주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27명 가운데 14명, 51.85%)이 농산물 유통을 꼽았다. 농촌 의료, 농가 부채, 농가 일손 부족도 2순위 농촌 문제로 인식되었다. 수촌마을의 경우, 주민 40명 가운데 10명(25%)이 농산물 수입개방을 2순위 농촌 문제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 농업 정책의 무계획성과 농촌 자녀 교육을 농촌 문제로 인식하였다.

전제적으로 두 마을 주민은 현재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사회와 경제 상황을 일정하게 반영하여 인식하

표 18. 정부와 농협에 대한 주민의 인식

(단위: 명)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농업협동조합	
	상곡마을	수촌마을	상곡마을	수촌마을	상곡마을	수촌마을
대단히 많은 도움		2	1		1	2
어느 정도 도움	1	21		21		14
그저 그렇다	5	3	5	4	10	4
거의 도와 주지 않는다	3	5	8	7	2	11
전혀 도와 주지 않는다	10	10	8	9	6	10
계	19	41	22	41	19	41

자료: 설문조사

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가격과 수입개방, 자녀교육, 의료 문제 등에 대해서 두 마을 주민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상곡 마을은 실질적으로 대구광역시권에 속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농촌 마을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마을 주민은 농산물 수입개방, 자녀교육, 의료 등이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곡마을 주민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자신의 마을을 거의 혹은 전혀 도와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수촌마을 주민은 도움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양분되어 있다(표 18). 상곡마을의 주민 19명 가운데 8명(42.11%)은 중앙 정부의 도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반해 수촌마을의 주민 41명 가운데 21명(51.22%)은 중앙 정부의 도움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촌마을을 대표하는 농업 활동인 참외 재배에 중앙 정부가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주민 41명 중 15명(36.58%)은 중앙 정부의 도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 마을의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농민회 활동에 적극적 지지를 표시하면서 현 정부의 농업 관련 정책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두 마을에 대한 지방 정부(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의 도움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곡마을 주민 19명 가운데 10명(52.63%)은 자신의 마을에 대한 농업협동조합의 도움에 대해 그저 그렇다고 인식하였고, 8명(42.11%)은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수촌마을의 경우, 41명 가운데 14명(34.15%)은 농업협동조합이 마을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21명(51.22%)은 거의 도와 주지 않거나 혹은 전혀 도와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상주군의 9개 면 각각에 위치한 농업협동조합은 참외 농가에 원자재 공급, 상품의 유통, 대출 등을 통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수촌마을 주민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결론

본 연구는 성주과 고령에 위치한 두 동족마을의 자연 환경과 사회·경제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성주와 고령 혹은 경상북도 전체의 동족마을에 확대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변화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양적·질적 자료들을 이용하여 두 동족마을의 사회·경제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논문에 이용되고 있는 특정 변수들, 자연환경, 인구, 토지이용, 생산양식 등이 인과관계에 있는지 혹은 특정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연구 결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기술한다.

첫째, 자연환경과 동족마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동족마을을 논의할 때 자연 환경은 마을 주민들이 사회·문화·경제 활동을 위한 배경(혹은 무대)으로만 다를 뿐 이것이 주민들의 활동과 인식 그리고 마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준 능동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상주와 고령에 위치한 동족마을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낙동강과 주변 산지에 의해 형성된 퇴적지형 혹은 선상지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동족마을의 위치는 마을 내·외부와의 관계, 자연 재해, 생산 활동, 주민의 의식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전까지 낙동강에 인접한 상곡마을과 가야산계의 기저부에 위치한 수촌마을은 자연 환경의 영향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후는 상이한 경로를 보였다. 1990년대 이후 상곡마을은 낙동강과 내륙성 기후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대신 대구광역시라는 대도시의 주변적 위치가 주민의 인식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수촌마을은 산지 지형과 일교차 큰 대륙성 기후 특색으로 참외를 상업적 작물로 생산하게 되었고 이는 주민의 활동과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일반적으로 동족마을의 유지는 동성 혹은 비동성의 인구가 자연적 증가 혹은 사회적 증가에 의

해, 일정한 수준으로 (재)생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족마을 자체가 존립하기 어렵게 된다. 1970년대 이후 인구의 감소는 상곡과 수촌의 두 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마을의 자녀 출생과 도시로 이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동족마을에서 인구의 감소는 수백 년 동안 존립해 왔던 동족마을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인구와 함께 동족마을을 유지하는데 물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와 이와 관련된 생산 활동을 고찰하였다. 고령과 성주의 동족마을은 비교적 좁은 토지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소수의 가구를 제외하고는 주민 대부분은 어렵게 살아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는 동족마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구광역시와 마주보고 있는 상곡마을은 1990년대 이후 대구광역시의 외연적 팽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이에 반해 가야산계에 가까이 위치한 수촌마을은 참외를 대규모 상업적 작물로 재배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 동족마을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다.

넷째, 마을의 농업상태에 대해 상곡과 수촌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식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상곡마을의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농업 상태를 나쁘게 인식하였다. 이에 반해 수촌마을의 주민은 마을의 농업 상태를 보통 혹은 괜찮은 편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두 마을의 현재 농업 상태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동족마을의 주민은 현재(2005년)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주

1) 동족마을은 같은 동족이 모여 사는 마을로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족마을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

“부락(마을) 성원 전원이 거의 동족성원만인 경우도 있고, 몇 개의 동족집단이 한 부락 내에 살면서 각기 동족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 위세가 강한 양반출신의 동족집단과 비동족의 양반이외층 출신 성원들이 한 부락내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김택규, 1966, 32). 동족마을은 단일 혹은 소수의 동성동본의 성씨 집단이 특정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형성되었다. 이것은 주민의 신분 구성에 따라 양반·중인·평민·천민 마을로 구분되고 있으나 양반 중심의 마을이 동족마을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중인층으로 이루어진 동족마을은 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역촌이 대표적이다(이해준, 1996; 정진영, 1995). 본 연구에서의 동족마을은 이택규의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마을, 즉 양반의 동족이 중심세력을 이루는 마을을 지칭한다. 동족마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는 김미영(2008)의 논문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전종환(2005)은 촌락사회지리학의 주요 개념 모색에서 동족마을의 유사 개념 가운데 ‘종족촌락’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 2) 김필동(2000)은 ‘동족’ 대신에 종족(宗族)이란 접두사를 붙여 종족집단과 종족마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족의 의식과 활동이 특정한 마을의 범위를 벗어나 대도시 지역까지 확장된 예는 이창기(2004)의 벽진이씨의 대종회와 대구화수회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9월부터 1년간 안동지역의 동족마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안동에는 약 200여개(미확인 마을 포함)의 동족마을이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주승택, 2004, 401~408).
- 3) 김미영은 이해준(1996)과 정진영(1998)의 연구물과 자신의 연구 결과를 결합하여 동족마을은 17~18세기 구체적 양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양계적 친족이념이 보편적이었던 15~16세기에는 이성잡거의 마을이 대부분이었으나, 17~18세기를 기점으로 부계적 친족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동족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김미영, 2008, 165).
- 4) 조사 지역인 상곡마을은 행정적으로 상곡1리에 속하는 마을이다. 이하 상곡마을은 상곡1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5) 조사 지역인 수촌마을은 행정적으로 수촌4리에 속하는 마을이다. 이하 수촌마을은 수촌4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6) 기존의 연구 주제들을 검토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 있는 동족마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동족부락(양보경, 1980; 장보웅, 1983), 씨족촌락(김덕현, 1983), 동족사회집단(홍현욱·최기엽, 1985), 동족촌(정혜정·최기엽, 1990; 최영준·송종균, 1990; 이문중, 1994), 씨족집단(이간용, 1994), 종족집단(전중환, 2002, 2003)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 7) 1990년대의 논문은 정혜정·최기엽(1990), 최영준·손종균(1990), 이간용(1994), 이문중(1994) 등이 있다.
 - 8) 저자들은 동족마을 대신에 집성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집성촌은 주도적인 성씨가 주도하는 동족마을을 포함해 이성잡거(異姓雜居)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여러 성씨들이 모인 형태의 촌락을 지칭하는 개념이다(이근호·조준호·이규형, 2001, 275).
 - 9) 정승모(1983)에 따르면, 통혼망은 촌락의 단위를 넘어 형성되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연결체계로서 성씨간의 지역적 연결상태를 나타낸다. 통혼권은 통혼 지역의 범위를 의미한다.
 - 10) 사문진교(공사시간: 1989.10.12~1993.6.15, 교량폭, 9.25m, 교량길이, 780m)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과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사이에 놓여있다. 다리가 건설되기 이전 다사면 주민들은 나룻배를 이용하여 화원과 대구를 왕래하였다.
 - 11) 수촌마을은 행정적으로 1리, 2리, 3리, 4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1리와 2리에는 여씨가 그리고 반면 4리는 도씨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50대 중반의 도○○과의 면담, 2010년 4월 18일).
 - 12) 2010년 4월 18일 벽진면 수촌 4리에 인접한 참외 비닐하우스에서 50대 중반의 도○○과의 면담한 내용이다.
 - 13) 김택규 외, 1995,
 - 14) 김부성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고령군은 인구구조상 우리나라 일반 농촌 내지 낙후지역의 평균적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단지 차이만 하면 1995~2000년 사이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2009, 52).
 - 15) 전의 이씨의 집안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현재에도 행동거지가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예의 범절, 특히 여성에게 지위전 행동거지의 부자유는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크게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 16) 지형도(1919년 발행)를 통해서 상곡마을 주변의 토지이용 형태를 파악하였다.

- 17) 1960년도 중반에 발행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마을 주변과 평야 지역의 토지 이용을 분석해 보았다.
- 18) 1994년 항공촬영을 하고 2003년에 수정된 지형도이다.

참고문헌

- 권내현, 2006, “조선 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통혼 양상: 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 한국사연구 132, pp.109-135.
- 권태환, 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 2, pp.39-56.
- 김건태, 2009, “20세기 전반 동성촌락의 경제적 변화: 장흥군 용산면 칠리안속 마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7, pp.7-36.
- 김덕현, 1983, “씨족촌락의 형성과정과 입지 및 유교 문화 경관: 안동지방의 사족 촌락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10, pp.241-251.
- 김미영, 2008, “동족마을 정착과정에 나타난 친족이념의 변천양상: 안동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 2, pp.165-195.
- 김부성, 2009, “고령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1), pp.36-52.
- 김수옥·유병민, 2003,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양상,”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5(4), pp.1-14.
- 김택규, 1966, “동족부락의 생태: 경북안동지방의 한 반촌의 경우,” 지방행정 15(155), pp.32-41.
- 김택규 외, 1995, 낙동강 유역사 연구, 수서원.
- 김필동, 2000, “한국종족 집단의 형성과 변동,” 농촌사회 10, pp.261-292.
- 김필동, 2006, “민촌적 배경을 갖는 종족마을의 종족집단과 그 변화 - 충남 부여군 한 농촌 마을의 사례,” 농촌사회 16(1), pp.43-94.
- 김춘택, 2006, “농촌 동성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결속력에 관한 연구 - 안동 가일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7, pp.281-307.
- 박규택, 2004, “미작과 과수 재배 지역의 사회와 경제 변화: 상주권 농촌 촌락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1), pp.744-756.

- 박덕병·윤유식·이민수, 2007, “한국 농촌지역개발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4), pp.600-617.
- 신동호, 2008, “미국 캘리포니아의 와인생산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 나파·소노마 지역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1), pp.130-147.
- 안종현, 2007,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장흥군 진목마을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pp.197-210.
- 양보경, 1980, “반월면 4리 동족부락에 대한 연구: 기원과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7, pp.29-52.
- 오남현, 2002, “산지촌의 농업토지이용 변화와 특성 - 경북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지역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37(1), pp.93-110.
- 옥한석, 1986, “영서 태백산지에 있어서 씨족의 이동과 촌락의 형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 34, pp.30-46.
- 이간용, 1994, “씨족집단간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촌락의 공간구조,” 지리교육논집 31, pp.27-62.
- 이근호·조준호·이규형, 2001, “경기북부지역 집성촌의 분포와 입지조건,” 북악사론 8, pp.273-299.
- 이문중, 1994, “동족촌의 인구이동과 촌락의 변모,” 지리학 30, pp.77-89.
- 이병희, 2000, “진도 동족마을의 입지조건과 경제기반,” 지방사와 지방문화 2, pp.83-134.
- 이상율, 2007, “1930년대 경북지역 동족마을의 사회·경제 환경,” 사회이론 가을/겨울, pp.291-334.
- 이성임, 2008, “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혼인관계: 단성현 법률야면 상산김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2, pp.245-266.
- 이창기, 2004, “대도시지역 부계혈연집단의 조직: 벽진이씨 대중회와 대구화수회의 사례,” 민족문화논총 29, pp.315-348.
- 이창기, 2006, “종족구성과 마을조직: 영해지역 세 반촌의 비교,”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pp.327-374.
- 이해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 임용한, 2006, “충북 진천의 향촌사회 구조와 변동: 토지 소유 및 경작관계를 중심으로,” 호서사학 45, pp.63-94.
- 장보용, 1983, “전남지방 동족부락의 구조와 기능,” 지리학 27, pp.15-30.
- 장석홍, 2001, “근현대 경기북부지역 집성촌의 변천과 성격,” 북악사론 8, pp.411-447.
- 조강희, 1996, “전통사회의 혼인에서 지연의 문제,” 민족문화논총 16, pp.133-158.
- 조영국·박창석·전영옥, 2002, “농촌의 어머니 인식의 구조와 의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2), pp.157-174.
- 전중환, 2001, “본관의 능층적 의미와 그 기원에 대한 역사지리적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36(1), pp.35-51.
- 전중환, 2002, “종족집단의지역화 과정에 관한 연구(I): 생태적 정착단계,” 사학연구 67, pp.131-170.
- 전중환, 2003, “종족집단의 지역화과정에 관한 연구(II): 16-17세기 계보의식의 탄생과 사회관계망의 공간적 확장,” 대한지리학회지 38(4), pp.575-590.
- 전중환, 2004, “사족집단의 사회관계망과 촌락권 형성과정: 오저산(烏棲山)의 계거지(溪居地) 청나동(靑蘿洞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6(2), pp.36-52.
- 전중환, 2005a, “한국 촌락사회지리학의 주요 개념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40(3), pp.353-368.
- 전중환, 2005b, “근·현대 민촌(民村)의 사회공간적 성격과 영역성 - 부여군 장하리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0(6), pp.613-630.
- 전한식, 박우철, 2001, “성주 지역 시설참외 연작지의 토양 특성 및 토양선충 변화,” 한국환경농학회지 20(2), pp.127-132.
- 정승모, 1983, “혼인권과 지역사회체계연구,” 한국문화인류학 15, pp.121-137.
- 정승진, 2004, “20세기 전반 전통 농촌지역의 사회변동 양상: 전남 나주군 다시면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48, pp.235-276.
- 정진영, 1995, “조선후기 동성촌락의 형성과 발달,” 역사비평 28, pp.336-343.
-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 정혜정·최기엽, 1990, “동족촌의 지역화과정과 공간구성,” 지리학연구 16, pp.17-44.
- 주성택, 2004, “안동문화권 유교문화의 현황과 진로모색,” 안동학 연구 3, pp.381-408.
- 최영준·손종균, 1990, “동족촌의 문화지리적 연구 -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의 사례연구,” 문화역사지리 2, pp.19-37.
- 최희만, 2003, “영남지방 4대 전통취락의 지형적 입지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4), pp.413-424.
- 형기주, 2008, “한국 경제지리학 50년, 학회창립 10주년, 회

고와 전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1), pp.1-7.
홍현옥·최기엽, 1985, “남양홍씨 동족사회집단의 지역화
과정,” 지리학연구 10, pp.71-94.
善生永助, 1935, 朝鮮의聚落 後篇, 조선총독부.

교신: 박규택,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
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화: 051-510-
7430, 이메일: pkt11@pusan.ac.kr

Correspondence: Kyu-Taeg Park,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san30, Jangjeon-
dong, Geumjeon-gu, Busan, 609-735, Korea, Tel:
+82-51-510-7430, e-mail:pkt11@pusan.ac.kr

최초투고일 2010년 3월 16일

최종접수일 2010년 6월 6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3, No.2, 2010(270~295)

Natural Environments and the Change of Social-economic Conditions in the Clan Villages: In Case of Sanggok and Suchon Clan Village, Kyongbuk Region

Park Kyu Taeg*

Abstract : This thesis is to examine natural environments and the change of socio-economic conditions in the clan villages of Kyongbuk region through the case study of Sanggok and Suchon one. The results of the study is summarized in the followings.

Firstly, after the early 1990s Sanggok clan village located in Dasan-myeon was not influenced by its natural environmets, but by the relative location near a large city, Taegu. On the contrary, after the 1980s Suchon clan village in Byeokjin-myeon has been grown as an agricultural area of commercially producing water melon due to mountain and its related climate.

Secondly, the total population of Sanggok and Suchon clan village have been continuously declined after the 1970s. Particularly the numbers of children per household were declined to 2.4 in the late 2000s. Consequently it is suspected whether or not the clan villages will be existed in spite of their declining population in the future.

Thirdly, people in the Sanggok and Suchon clan village were generally poor due to the small agricultural land. After the 1970s, however, the villages have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f Korea. Sanggok clan village was influenced by the outside expansion of Taegu metropolitan city due to its relative location while Suchon village by the commercial cultivation of water melon under a good condition of natural environments.

Fourthly,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people's cognition to the agricultural conditions of the Sanggok and Suchon clan village. Such a difference is closely related to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two different clan villages.

Keywords : clan village, natural environments, population change, commercial cultivation,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 HK professor,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pkt11@pusan.ac.kr